

## 한국사 문제 7월5일

### 1. (가)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원군은 1866년의 병인양요 때 이 상인들이 공을 세운 계기로 부보청을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도반수가 되었으며, 만아들 재면을 총리로 삼아 관리하였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인천·원산·부산이 개항됨에 따라 일본 상인이 밀려왔다. 부보청으로서는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으므로, 1883년 김병국의 건의에 따라 군국아문 관할 하에 이 상인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가)를 두었다. (가)는 이 상인들을 보호하고 이 상인들의 민폐를 근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 ① 고종의 명으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 ② 광산의 민영화로 민영광산을 운영하는 덕대를 두었다.
- ③ 시전상인들이 내지통상권에 반대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 ④ 급진개화파들이 혁파하고자 하였다.
- ⑤ 신해통공에 반대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 2. (가), (나)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능완성 75P 8번 연계)

(가)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중략)..이것을 자세히 연구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 종족인 단군 후예의 참모습이 생생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의 조상을 잘못 기록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에서 순수하며 광대 정미하여 많은 성인이 뒤를 이어 전하고 많은 현인이 연구하여 밝힌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대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중략)..우리 대한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대로 내버려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승상함이라

- ① (가)- 계몽주의 사학자로서 민족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 ② (가)- 국민대표회의 때의 창조파로 활동하였으며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하였다.
- ③ (나)- 랑케의 실증주의를 이어받은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 ④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⑤ (나)- 국혼을 중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